

대통령실·내각 총선 출마 러시...달아오른 與 공천 경쟁

정치인 출신 장관들·용산 참모진 20~30명...대부분 텃밭 노려 당내선 "윤심과 무관"...인요한 "특정인 내려보내기 있을 수 없어"

대통령실 일부 인사와 내각의 '총선행'이 사실상 시작되는 등 여당의 총선 공천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 사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급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된다.

또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으로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25~30명(전직 포함)이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이나 학연 등 연고를 들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강남 등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이나 학연 등 연고를 들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강남 등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대통령실 참모진이 그 지역의 전·현직 의원과 맞붙거나, 내각 출신 인사와 경쟁하게 되는 구도가 거론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성남분당읍이다. 지난 총선 때 옆 지역구(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경기도지사 도전으로 사퇴한 김은혜 후보수석이 이곳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 이곳을 노리는 박민식 장관과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옛 지역구(서울 마포갑)

를 떠나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곳은 홍문표 의원이 5선에 도전하려는 지역이다.

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전봉민 의원이 현역인 부산 수영, 강병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김영식 의원이 현역인 경북 구미를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병훈(경북 포항남·울릉), 허창희(경기 포천·가평), 이동석(충북 충주), 김인규(부산 서·동구) 등 전·현직 행정관들이 출마하려는 지역도 역시 국민의힘 현역이 버티는 지역구다.

김기홍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읍)과 김보현 부속실 행정관(경기 김포갑)의 출마 예상지는 현역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전직 의원 출신들이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터를 닦아 놓은 곳이다.

당내에선 이같은 내각·참모진의 움직임에 당혹스럽다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내려보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른바 '용산발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텃밭만 노리는 참모진의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희생"을 권고한 점을 강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서 공천에 도움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심' (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이들에게 얼마나 실릴지, 당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고려할지가 최대 변수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伊, 북문제 우리 지지한 우방국"...마타렐라 "우정 더 돈독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국으로서 약 23만명의 군인과 민간인 환자를 치료해준 고마운 우리의 우방국"이라며 "내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어 더욱 각별하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국은 특히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의 교역, 또한 여러 국제 교류에 있어 서로 협조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바로 전략적

동반 관계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의 방문으로 인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 돈독히 되길 바라며 윤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한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호 안보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세페 페리코네 대통령외교보좌관실 참사관, 지오반니 그라소 대통령실 대변인, 시모네 케리니 대통령 보좌관, 우고 잠페티 대통령 비서실장, 에드문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에말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15~18일 美 샌프란 APEC 참석

20~23일 영국 국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순부터 다음달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무대로 전방위 정상외교를 펼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20일 다시 출국, 23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민 방문한다.

곧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 25일까지 현지에 머무르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

각국 재계 지도자와 석학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만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일 영국을 국민 방문한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민이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인요한 만난 홍준표 "듣보잡들 정리해 달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뿜고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종)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편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선대위원장'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바뀌지 않을 경우" 12월 말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들어와야 한다.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그를 만나러 찾아갔다 대화 불발된 데 대해선 "문전박대를 당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쑥 갔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가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해야겠다. 위로하고 설득하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와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